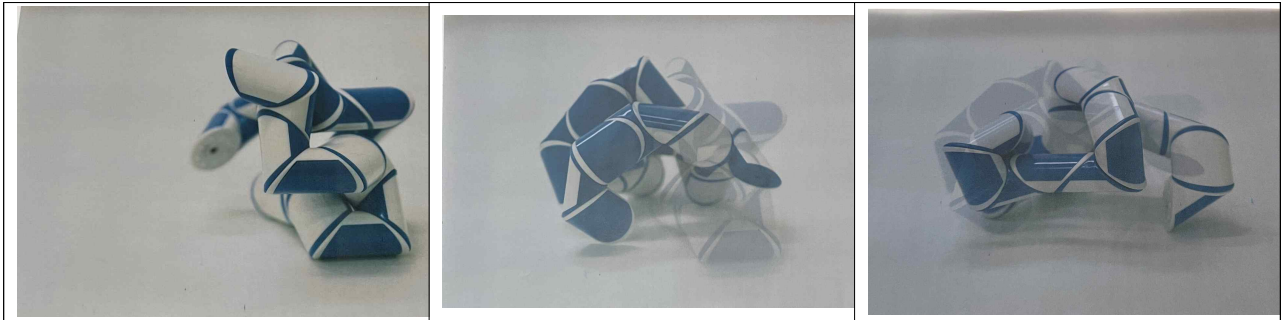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21:00 ~ 22:20

다름, 이상 (우리들의 대화)
드로잉 작업 공유하기

[김자영 작가님의 드로잉]



정유하 작가 : 손가락의 구조가 떠올랐고, 솔직함, 진실과 거짓이라는 단어를 구조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이계월 작가 : 지난 대화에서 나온 무한대라는 단어가 떠오른다. 수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직선과 곡선이 섞인 형태가 재미있다.
염선빈 작가 : 이미지에 잔상같은 또다른 레이어가 어떤 동세처럼 느껴졌고 하나의 형태를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나는 관점에 대해 관심이 많다. 이걸 스네이크 큐브다. 저번 대화에서 일상, 순환 이라는 단어에서 영감을 얻었다. 바꿔보겠다고 했던 생각이나 행동들을 펼쳐보면 결국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하나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마디마디를 꺾어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 있지만 결국 마디를 가진 큐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원통의 오브제로 귀결되는 스네이크 큐브를 활용해 표현해봤다.

[정유하 작가님의 드로잉]



이계월 작가 : 무한대, 사마귀, 식물의 가시 또는 상처가 떠오른다. 영원회귀도 떠오르고, 짐작되지 않는 이미지라 흥미롭다. 역시 젊은 작가라 그런가(웃음)

김자영 작가 : 무한대와 가시라는 이미지가 가운데 이미지로 설명이 될 것 같다. 바뀌지 않는 상처에 대한 이야기 인가? 각 이미지가 갖고 있는 연관성이 궁금하다.

염선빈 작가 : 무한대의 이미지에 먼저 시선이 갔다가 가운데 이미지의 공격성을 가진 눈, 대립되는 이미지 마지막으로 신체의 털을 확대했을 때 의 이미지 같아서 인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증이 생긴다.

저번 작가들과의 대화에서 누구나 삶이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무한대 이미지는 내가 하고 싶었던 문신이었다. 돌고도는 삶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감정을 삭힐 때 숨기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얼굴에서 감정이 드러나는데, 부딪히는 공격적인 느낌이 담겨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작업했던 것 같다. 세 번째 이미지는 우리의 모습을 아주 멀리서 본다면 길위에 사람들이 가시처럼 박혀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했다.

[이계월 작가님의 드로잉]



정유하 작가 : 낮인데 밤 같기도, 내부에서 그렸을까 외부에서 그렸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만들었다. 어떤 마음으로 그린 풍경인지 궁금하다.

김자영 작가 : 일렁이는 느낌이 자동차 유리, 버스 유리를 통해 보는 풍경 같았다. 비가 오기 전에 부는 바람이 떠오른다.

염선빈 작가 : 흑백 그림의 백색이 쌓인 눈처럼 보이고, 시야가 불분명해서 눈물을 머금고 바라본 풍경 같기도 하다.

저번 시간에 바람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남아있었다. 내 기억 중 가장 좋은 바람에 대한 기억이 있다. 산책길에 굉장히 많이 쌓인 눈을 바라보면서 어린애처럼 기분이 좋으면서도 알 수 없는 먹먹함이 있었던 기억이다.

내 드로잉을 보고 떠오르는 것들을 공유해주니 다시 한번 그때의 감정을 상기하게 된다.

[염선빈 작가님의 드로잉]



이계월 작가 : 부유하는 포자들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몽실몽실

정유하 작가 : 바람의 계곡 나우시카가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으로 그린 드로잉인지 궁금하다. 바람을 타고 손아오르는 포자? 순간에 가까운 이미지 같다.

김자영 작가 : 순간적으로 생기는 액체의 운동성과 이미지가 승화되는 느낌을 받았다.

저번 시간에 나눈 대화에서 허무, 바람, 운동성 단어들에 관심을 가졌다. 언어라는건 결국 순간 지나가는 경험, 감정들을 기록하고 붙잡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인데, 내가 느낀 것을 언어가 과연 백퍼센트 전달해줄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이 드로잉은 종이위에 물을 떨어뜨리고 흘리면서 생기는 물얼룩이 마르기 전에 윤곽선을 따라 그린 것이다. 시간이 흘러 물은 매말랐지만 따라 그린 물얼룩의 윤곽선은 남아있는 것이 순간순간 변화하는 감정을 전하는 언어들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다. 어쩐지 힘이 없는 이미지다. 과거는 힘이 없듯이(웃음)

정유하 작가 : 다들 작업을 어떻게 이어 나가고 있는지 궁금하다. 나는 작업을 하다 보면 종종 불안과 마주한다. 미래에 대한 불안, 작업의 방향성에 대한 불안 등등..

김자영 작가 : 나는 작업에 몰두할 여건이 되면 몰두하고, 경제활동을 해야할 때가 된다면 경제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돈이 생기면 다시 작업에 몰두하고(웃음) 나는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다. 현재 내 상황에 맞게 주제도 바뀌고 작업 방식도 바뀐다. 내 작업은 내 경험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런 자유분방함이 좋다. 비록 갤러리에서는 그리 좋아하지 않지만(웃음)

정유하 작가 : 그 말에 동의한다. 처음 작업의 컨셉을 잘 잡으라는 조언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땐 몰랐지만 지금은 왠지 알 것만 같다.

이계월 작가 : 맞다. 보통 갤러리는 하나의 주제, 기법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편인 것 같다. 나는 살기 위해 작업을 한다. 작업을 해야 숨을 쉬고 살아있는 것을 느낀다. 오히려 작업을 하지 않을 때 불안감을 느끼곤 한다.

염선빈 작가 : 나는 애니메이션 작업도 하고, 펜을 활용한 드로잉 작업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시도해보지만 결국 한지라는 재료로 다시 돌아오는 것 같다. 재료가 주는 우연성에 조금 의존하는 것 같기도 하다. 나는 불안이라는 감정을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 해소하는 편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린다는 행위가 나의 불안을 잠재워 주는 것 같아 오히려 좋다.

정유하 작가 : 작업메이트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홀로 작업을 이어나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렵다. 이럴 때 동료와의 두런두런 일상을 주고받는 통화가 있다면 반복되는 붓질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 화상회의 화면.

